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 창세기 1장 26-31절

Tag: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1:26-31)

우리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은 핵심적인 가치관이다.

사람의 사람됨이란 그 사람의 가치관의 질에 따라 그 질이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가치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의 질과 직결된다. 가치관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는 말은 마치 기계에 전원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다. 그 믿음이 크다는 말은 전원의 와트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믿음이 그 사람의 사람됨의 질을 결정한다.

어떤 사람이 왕의 아들이라고 하자. 그런데 자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왕자처럼 행동하지 못한다.

자신이 왕자인 것을 알지만 믿지 않는다면 자기가 왕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나 자신이 왕자인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는 즉시 왕자의 권세를 회복할 것이다.

기독교적 가치관의 특징은 이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사람 속에서 창작되어 취득한 가치관이 아니다.

물론 시대마다 약간의 해석적 차이점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조각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성되듯이 기독교적 가치관도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점점 더 명확하고 심층적이며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더 그 가치의 품격이 격상되고 있다.

### 1.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이 가치관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자기정체성 혼돈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가치관이다. 오늘날에는 성정체성 혼돈을 치유할 수 있는 가치관이기도 하다.

-예수님께는 친아버지, 우리들에게는 창조주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이지만 낳는 것과 만들어진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간단한 명제에도 깊은 의미가 있고 이것을 무시할 때 엄청난 오류가 생긴다.)

-기독교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둔다.

-분명히 사람도 피조물이기는 하지만, 인격적 존재로 비인격적 존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치가 월등하다. (인격>생물, 영생>생명)

-다만 인격은 신격은 아니므로 그 한계 또한 분명하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 받았다. 이것은 나중에 진화를 거듭

하면서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람이 세상과의 차이도 영원토록 극복될 수 없듯이 사람 또한 하나님과의 차이를 영원토록 극복하지는 못한다.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명시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하나님께 복수를 사용한다. 사람의 인격에는 복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두명 이상이 모여 있어야 복수를 사용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복수를 사용한다.

-물론 이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도 생겨났지만,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은 삼위(위격>인격)가 있는데 삼위는 서로 깊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일체로 인식되신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사람들에게는 두명 이상 공존할 때 적용되는 존재방식이다. (그래도 사람들이 70억 전체가 동시에 서로 깊이 침투해 존재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동등이 되거나 비슷해지거나 초월하는 존재가 되지는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는 하나님의 엠베세더. 대사다. 하나님이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다.

-다스림의 대상은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들, 땅의 짐승들, 가축들, 땅과 땅 속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사람들의 다스림(통치)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지만(자연상태),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아서 더 나아지고 더 유익해지고 더 생산성이 높아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평화스러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강해지기를 원하신다.

-분명히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 이 아니다. 대사는 주인의 뜻대로 해야 하는데, 주인의 받을 망가뜨리면 곤란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발하지 말아야 하며, 자연을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은 26절, 28절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사명을 망각하는 것이다.

-생태계는 파손시키지 말아야 하며,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이 생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태계는 그 창조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다스려져야(개발되어야) 한다. 다스림에는 나쁜 것, 악한 것, 악한 의도들에 의해서 통치되려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생태계를 더 풍요롭게 해야 한다. 더 풍요롭게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연 상태를 보다 더 나은 문명된 상태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잘못된 예가 AI를 부른다. 쉽게 돈 벌려다가 AI가 발생한다.)

-사람들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유는 현 생태계를 약탈하듯이 포획하기 때문이다. 약탈은 정복도 다스림이 아니다. 정복이란 악한 약탈자를 몰아내고 주권과 소유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며, 다스리는 것이란 그 생태계를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생산성이 최고의 수준으로 향상되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 환경론자들도 무조건 개발 반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어떻게 개발해야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하게 환경보호만을 외친다면 그는 곧 세계적인 개발 현장 앞에 자신을 엄청난 죄인으로 낙인찍게 될 것이며, 그가 가야 할 곳은 종말론자들의 모임 밖에는 없게 된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종말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개입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의 약탈로 빚어지는 환경파괴가 종말은 아니다.

## 2. 먹거리 (시간이 된다면 다룸)

-29절에 보면 채소와 과일을 우리의 주 음식물로 규정하고 있다.

-안식교 이단은 이 말씀만을 주장하며 육식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개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저주를 받은 한 차례의 종말을 겪었으며, 그 이후로는 육식이 허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1000년 정도 살 수 있는 수명이 단축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해서 육식을 금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말은 거짓이다.

3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4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오늘날 우리에게서 진리의 말씀, 진실된 사실에 대한 분별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지표(캐논)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한해가 되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